

국내 최초 벽돌가마 천정형 구조 발견

진안 도토리 초기청자 가마터 발굴조사서 확인... '천정 온전한 상태로 발견' 학술적 의미 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벽돌가마가 진안군에서 발견됐다.

이번 발견은 초기 청자 생산 가마의 구조와 제작 기술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의 지원을 받아 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박장근)이 진행한 '진안 도토리 초기 청자 가마터 발굴조사'에서 벽돌가마가 추가로 확인됐다.

조사구역은 기존 사적 지정 구역에서 동쪽으로 약 110m 떨어진 지점으로, 이로 인해 가마의 분포 범위가 예상보다 넓었음이 입증됐다.

현재까지 조사된 구간은 약 14m이나, 기존 사적 지정구역에서 조사된 가마의 형태와 지형 및 폐기장 등을 고려했을 때 전체 길이는 40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발굴에서는 청자를 구웠던 주요 공간이 확인됐으며, 초기에는 벽돌가마로 축조된 후 점차 진흙가마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벽돌가마와 진흙가마의 천정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로, 학술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벽돌을 층층히 쌓아 가마를 조성한 점에서 중국 청자 제작 기술이 국내에 전래돼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진흙가마 벽체에는 12차례 이상의 보수 흔적이 남아 있어 오랜 기간 동안 가마가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측면 출입시설 역시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 청자 생산 과정을 연구하는 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벽돌가마가 진안군에서 발견됐다. 사진은 출토 유물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가마 폐기장에서는 선해무리굽이 적용된 청자 완(사발)과 접시, 꽃모양 접시, 주전자 편, 다양한 형태의 갑발(匣鉢), 벽돌 조각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이는 당대의 수준 높은 청자 제작 기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마의 구조와 함께 중국과의 교류 관계를 밝혀줄 중요한 자료다.

진안군 성수면 도봉리에 위치한 이 가마터는

후백제 도성인 전주와 인접한 지역으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후백제에 의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초기 청자 생산 가마의 구조와 제작 기술, 중국과의 교류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향후 추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사적 구역 확대 등 유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제경쟁 본선 선정작 10편 공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86개국서 662편 접수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국제경쟁 본선 선정작 10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은 장르의 구분 없이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을 소개하는 섹션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공모를 받았으며, 86개국에서 662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예심 심사에는 파올라 부온템포(Paola BUONTEMPO), 손효정 선정위원과 문석, 문성경, 전진수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을 대표해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다큐멘터리가 2년 연속 200편 넘게 출품됐는데, 그중에서도 감독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사적 다큐멘터리'가 많았다는 점은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워진 제작환경이 아닐까 한다"며 "창작자들에게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심사평의 운을 댔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영상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창작자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한 모든 감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아준 작품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비룡로)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한국동시축제 메인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부안군문화재단은 오는 5월 17일 '동시 백일장'과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3회 한국동시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동시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국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동시 백일장은 초등부, 청소년부, 성인부 등 3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대회는 축제 당일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시제공개는 당일 1시에 현장에서 발표된다. 부문 구별 없이 총 6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며, 사전접수 기간은 5월 9일까지이다.

가족 창작동시 낭송대회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팀)이 자작한 창작동시를 낭송하는 형

식이다. 어린이가 없는 가족 구성원도 참여할 수 있고, 선착순 15가족(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심사기준은 낭독뿐만 아니라 음악과 율동을 포함한 다채로운 요소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장상, 부안군수 상 등 총 129명에게 의미 있는 시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독서진흥 및 문화예술품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도 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의 공모요강 및 참가신청은 부안군문화재단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시축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재단 사업담당자(063-584-6212)에게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 청년작가 전시로 문화상생 나서

전북대 중앙도서관, 6월 15일까지 기획초대전 개최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실동훈)이 대학 내 도서관 공간을 활용해 지역 청년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출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도서관은 4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중앙도서관 1층 중도라운지 갤러리에서 지역 청년미술작가 그룹 포지노마드(김누리, 서수인, 엄수현, 이권중)의 기획초대전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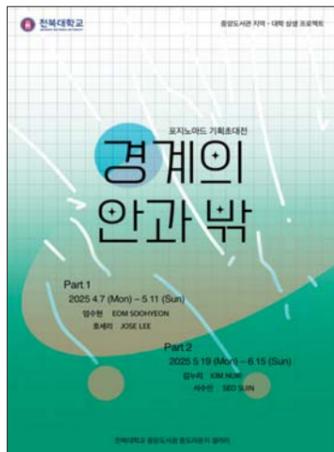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상대적으로 작품 발표 기회가 적은 지역 청년작가들에게 대학 내 다중이용 시설을 전시장으로 제공해 미술시장 진출을 돕고, 역량 있는 지역 예술인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국가거점대학의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엄수현·이권중 작가가 참여해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되며, 2부는 김누리·서수인 작가의 작품이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시된다. 특히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개성 있는 작품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 미술계의 대표적 청년 예술가들이다.

실동훈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더욱 넓은 미술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시, 제95회 춘향제 3차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 관하루 일원에서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인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3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민선식 부시장을 비롯해 행사 담당 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행사장의 안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춘향제 기간 운영될 대동 길놀이, 개막식, 주요 공연 및 체험 행사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당 부서와 경찰·소방·의료 지원기관이 협력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통 및 질서 유지 대책을 강화하고, 주요 동선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민선식 부시장은 "춘향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의 만큼, 무엇보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